

김정은 시대 북한 여성의 노동과 직업*

조경아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orlando@kinu.or.kr

I. 머리말

경제난과 시장화를 거치면서 북한 여성들의 노동과 직업생활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고난의 행군’ 시기 공장이 멈추고 배급이 중단되면서 국가와 가부장을 대신하여 온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게 된 것은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국 각지로, 때로는 국경을 넘어가며 생존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후 시장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의 생존과 유지를 위한 여성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고, 가족구성원의 생계와 국가경제의 상당 부분이 시장과 연계된 비공식부문에서 여성들이 행하는 노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에서는 전문직 여성의 사회 진출과 간부 발탁을 독려하는 등 여성들을 공식노동 부문으로 소환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의 직업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전문직 여성의 모범 사례를 내세우며 여성들을 공식노동의 영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식경제시대’에 과학기술로 경제적 도약을 이루려는 국가목표에 맞추어 전문성을 갖춘 일군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사회활동을 강조하고 있다.¹⁾ 이는 사회적 인정이 주어지는 공식노동 부문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 본고는 조경아·이지순·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2019와 조영주·장은하·문화영·박윤정·조경아·정은이,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중 필자 집필 부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1) 예를 들어 『노동신문』에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전투기 조종이라는 영역에 도전한 여성 전투비행사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축하했다는 기사(『노동신문』, 「선군조선의 첫 여성조음속전투기비행사 탄생」, 2015. 6. 22)와 박사 학위를 받은 여성과학자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기사(『노동신문』,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 관철에 앞장선 미더운 여성들」, 2018. 11. 16)가 실리기도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노동력이 공식부문 노동에서 이탈하고 있는 실태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기 북한의 성별 노동분업과 공식 노동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 구조를 살펴본다. 또한 북한에서 최근까지 생활한 탈북 여성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북한 여성들의 직업 선택과 공식노동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양상과 특성을 살펴본다.

II. 성별 노동분업과 성차별 구조

1. ‘남성 노동=공식부문 노동, 여성 노동=비공식부문 노동’이라는 성별 노동분업

경제난 이전 시기의 세대주 중심과 정치적 지위에 따른 배급은 개별 가정에서 남성의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하는 물질 토대가 되었고, ‘동등한 공민’인 여성과 남성을 위계화하였다.²⁾ 가구주의 의미는 세대를 대표하여 배급을 받음으로써 온 가족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과 뒤이은 시장화로 배급제는 군이나 일부 관료, 일부 연합기업소 등에서 부분적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 종료 이후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남성들은 다시 공식직장의 통제하에 들어갔지만, 여성들, 특히 기혼 여성들은 대부분 공식직장에서 이탈하여 시장을 비롯한 비공식 부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성들은 공식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장의 적(籍)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이 장사 등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물론 남성과 미혼 여성들도 공식직장에는 적만 걸고 시장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남성들이 공식직장을 이탈하는 것은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데 비해 여성들, 특히 기혼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통제를 덜 받기 때문에 시장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여성은 결혼 후에는 공식직장을 계속 다닐 수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고 ‘부양’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여성의 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미혼 여성들 중에도 뇌물, 질병, 가짜 결혼 등의 방법을 써서 공식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피하고 시장활동에

2)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정치: 배급과 ‘성분-당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제2호, 2013, pp.123-124.

뛰어드는 여성들이 있고, 결혼 전에 공식직장에 다녔던 여성들도 결혼을 하면 대부분 공식직장을 그만두고 비공식부문에서 장사 등의 생계활동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함께 남성 노동력 이탈을 통제하는 국가 정책의 결과, ‘남성 노동=공식부문 노동, 여성 노동=비공식부문 노동’이라는 젠더 특성을 띠는 노동분업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2. 공식노동 영역 내의 성별분업과 여성의 직업

공식노동 영역에서 여성들의 이탈은 한편으로는 배급 중단 또는 감소로 인해 공식노동의 유인이 사라진 반면 시장과 연계한 비공식부문의 노동은 실질적인 소득원이 되는 상황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한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부문 내에 존재하는 성별분업 구조와 여성에 대한 차별에 기인한다.

북한에서는 국가 계획에 따라 노동력을 배치하는데, 여성들은 주로 임금이 낮은 직종, 그중에서도 ‘여성의 특성’이 요구되는 경공업, 교육, 문화, 편의봉사 부문에 편중되어 배치된다.³⁾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장려되는 부분은 경공업, 교육, 문화, 편의봉사 부문 등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규정된 영역이다.⁴⁾ 2008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북한의 16세 이상 남녀의 산업별 인구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큰 산업부문은 채취, 전력, 도시경영, 건설, 운수 및 보관, 체신 및 정보, 과학연구, 공공봉사 및 국토, 국가관리 부문이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큰 산업부문은 농수산 및 임업, 소매 및 소매, 여관 및 급양, 교육, 보건 및 보양, 편의봉사 부문이다.⁵⁾

공식노동 영역의 성별분업 구조는 여성들의 직업 선호도에 그대로 반영된다. 탈북 여성들에게 북한에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서 유사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괜찮은 직업이라면 의사도 괜찮고 선생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사람들 생각에는 간호사도 그래도 깔끔하고 여자다운 흰 옷 입었으니까 괜찮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회계원. 일단은 일하는 그게 깨끗해야, 일하는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환경, 환경이 좀 깔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로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높아야 되고, 그래도 교원 같은 거 하면 일단 돈이 많이 생길 수*”

3)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4, p.185.

4) 박영자, 『북한 여자』, 서울: 엘피, 2017, p.356.

5) 장지연·김화순,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 고용 및 일 가정 양립연구』, 한국노동연구원·여성정책연구원, 2015, p.20.

있어요. 학부형들이 자주 막 뭐 시켜달라 어쩌라 하면 진짜 엄청 많이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업은 그것대로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의사들도 또 괜찮죠. 국가에서 딱히 주는 건 없지만, 이렇게 환자들이 그래도 선생님 수고했다고 사례비도 줄 수 있고 하다보니까 약간 자기 그런 게 있잖아요. 간호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계원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자기가 돈을 다루니까 거기서 자기가 좀만 어떻게 머리만 쓰면 자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20대 여성, 함경북도 거주, 간호사/장사, 2018년 탈북, 2019. 8. 2. 면담)

위의 증언에서 나타난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노동환경이 ‘깨끗한’ 직업, 공식직장일을 통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 사회적 평판이 좋은 직업이다. 의사, 교사, 간호사, 회계원 등이 그런 직업에 해당한다. 이 밖에 최근 여성들의 진출과 사회적 성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직종은 상업 부문의 직업이다. 상업 부문은 한편으로는 ‘봉사’라는 직업 부문의 특성이 여성의 특성과 잘 부합한다고 하여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상업 부문 내에서도 중요도가 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리는 남성이 차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통념이 존재하기도 한다.⁶⁾ 공식노동 영역 내에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좁다 보니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들은 직업진로와 관련하여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간부집 자녀이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여성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

3. 교육의 불평등과 교육-고용 연계구조

공식노동 영역의 성별분업은 고등교육의 젠더 불평등 구조와 연동된다. 국제기구의 북한 교육 통계에 의하면, 북한에서 중등교육 단계까지는 성별 격차가 보이지 않는 데 비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8년 기준 북한의 대학 총 취학률은 27.01%이며, 남성은 35.43%, 여성은 18.17%로 남성의 대학취학률은 여성의 약 두 배 정도이다. 성평등지수는 0.51이다.⁷⁾ 교육 기회에서 양성 불평등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고등교육 중에서도 학교급이 높을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심화되며, 지역에 따른 차이도 나타난다. 2014년 기준 중등교육 이상 교육기관에서 여성 비율은 도시지역의 경우 직업학교(55.03%) > 전문학교⁸⁾(45.79%) > 대학교 이상(28.64%)이며, 농촌지역에서는

6)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해산, 도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182.

7) UNESCO, UIS database(<http://data.uis.unesco.org>, 접속일: 2019. 5. 26).

8) 고급중학교 졸업 후 진학하는 기술인력 양성 고등교육기관인 2~3년제 전문학교는 2016년경 다른 대학에 통합되거나, 직업기술대학으로 승격되

직업학교(53.84%) > 전문학교(41.26%) > 대학교 이상(25.05%)⁹⁾이다. 기능공양성소나 간호원학교와 같은 직업교육기관의 경우 여성 비율이 절반 이상인데 비해, 대학은 30%에 못 미치고, 농촌의 경우 여학생 비율은 더욱 낮다.

고등교육 수혜율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는 대학 선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북한에서 대학 진학은 예비시험과 본고사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지역별, 학교별로 배정되는 대학별 본고사 추천권을 받은 학생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추천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비시험 성적, 가정 배경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재 전민복무제하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은 제1중학교 등 수재학교를 중심으로 선발하는데, 제1중학교 학생의 비율은 남성이 높다. 북한의 대학은 일반적으로 ‘직통생’보다는 군대나 직장에서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현직생’의 비율이 높는데, 군인의 수도 남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남성들이 현직생으로 대학에 입학한다.

대학 진학률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에서도 성별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공은 졸업 후 공식노동 부문에서 여성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표 1>은 고등교육 전공 분야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보여준다. 여성의 경우 교육분야 전공자가 30.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학·제조·건설 부문, 보건·복지 분야 순이다. 남성의 경우 공학·제조·건설 부문이 49.16%로 가장 많고, 농업·임업·어업·수의학 부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데 비해, 여성은 20% 정도만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북한의 대학별, 학과별 선발 인원은 해마다 각 산업부문별 인력을 고려하여 국가 계획 지표로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식 산업부문에서 나타나는 성별 분리 현상은 고등교육 전공 구조와 상호 연동된다. 탈북 여성들에 의하면, 여학생이 선호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사범대학, 교원대학, 상업대학, 의학대학, 외국어대학, 경제전문학교, 의학전문학교 등이다. 이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 부문과 거의 일치한다.

산업구조와 고등교육에서 산업부문별, 전공별 젠더 차이가 크며, 산업부문과 고등교육 전공의 젠더 구조가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학별, 학과별 선발 인원은 해마다 각 산업부문별 인력을 고려하여 국가 계획 지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전공 구조의 비율은 국가 계획상 산업부문별 고급인력 배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 부문별 인력양성 계획과 산업부문별 노동자 배치가 맞물리며 공식노동 영역의 산업부문별 노동력의 젠더 차이가 발생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폐지되었다.

9) Education Commission DPRK, *Education For all national EFA 2015 review: DPR Korea*, S.I.: Education Commission, 2014, p.55.

〈표 1〉 성별 고등교육 전공 분야¹⁰⁾

(단위: %)

전공	전체	여성	남성
교육	19.6	30.29	9.39
예술, 인문학	1.8	1.96	1.7
사회과학, 언론, 정보	9.06	13.3	6.63
경영, 행정, 법	0.41	0.23	0.51
자연과학	1.55	2.26	1.14
정보통신기술	2.72	2.72	2.73
공학, 제조, 건설	37.53	17.17	49.16
농업, 임업, 어업, 수의학	16.27	8.57	20.67
보건, 복지	10.13	16.03	6.77
서비스	2.89	6.95	0.56
과학, 기술, 공학, 수학	41.8	22.16	53.03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외	57.54	77.34	46.23
기타	0.66	0.51	0.74

4. 여성의 사회 진출과 ‘유리천장’

연구 과정에서 만났던 탈북 여성들 중에는 북한에서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대학 공부 뒷바라지를 하거나 남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한 여성들이 많았다. 20대 미혼여성 중에도 북한의 남녀관계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결혼 후에는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올려 세우겠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투자하여 교육수준을 높이고 공식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대신 남편을 출세시키는 것을 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이 권력기관의 고위직에서 일하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고위직군 중 여성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은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북한의 16세 이상 남녀의 직업군별 인구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고위직군인 책임일꾼의 비중이 여성 중에는 0.5%인 데 비해 남성 중에는 2.5%로 다섯 배나 차이가 난다. 전문가 비중도 여성 중 5.9%, 남성 중 10.5%로, 남성 중 전문가 비중이 훨씬 높다. 그에 비해 여성의 4.9%, 남성의 2.4%가 보조전문가로, 관리자와 전문가 중 고위직일수록 남성의 비중이 높고, 하위직일수록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10) UNESCO, UIS database, 2017(<http://data.uis.unesco.org>, 접속일: 2019. 5. 26).

알 수 있다.¹¹⁾

고위직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단일한 직종 내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에서 교원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학교급 별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소학교 교사의 84.5%, 초급중학교 교사의 47.7%, 고급중학교 교사의 43.7%가 여성이다. 이에 비해 대학교원 중 여성의 비중은 20.6%에 불과하다.¹²⁾ 또한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 여성 비율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16.3%로,¹³⁾ 정치적 측면에서도 여성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듯 보인다.

이렇듯 공식노동 영역에서 존재하는 ‘유리천장’에 대해 북한 여성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여자들은 별로 뭐 높은 직위에 앉는 게 진짜 없어요. 법관들도 그래, 법 쪽에도 그렇고, 뭐 군관이라든가 어쨌든 기관직에는 몽땅 다 남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여자들 보면은 큰 장사를 하든 뭐, 큰 장사꾼이라고 볼 때 여자들이 많지 법 쪽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자가 별로 없어요. (중략) 여자라면 여자는 큰 간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한국]는 프로수는 작아도 그래도 보면은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는 큰 간부는 다 남자들이 하는 거로 보고, 어쨌든 여기[한국]서는 좀 평등한 게 많은 거 같아요. 북한에는 여자들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20대 여성, 양강도 거주, 장사, 2017년 탈북, 2019. 5. 5. 면담)

“확률적으로 보면 남자는 90% 대의원. 여자는 10%. 그러니까 뭐 아예 여자들을 그렇게 뭐, 여자들이 영향력은 없어요. 진짜 1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여성 평등을 주장한다, 그걸 보여주느라고 내 생각엔 얹혀 놓은 거 같고. 종당에는 남자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남자들이 결론 내릴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자들은 병풍이라고 봐야 되나.” (20대 여성, 평양시 거주, 노동자/장사, 2017년 탈북, 2019. 8. 22. 면담)

위의 인용문은 여성들이 공식노동 영역에서 존재하는 ‘유리천장’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기관직에는 몽땅 다 남자”이며 “여자는 큰 간부는 못하고”, “여자들은

11) 장지연·김화순,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 고용 및 일 가정 양립연구』, 2015, p.22.

12) UNESCO, UIS Statistics(<http://data.uis.unesco.org/>, 접속일: 2019. 8. 30).

13) 이는 UN가입국 193개국 중 128위 수준이다. 한국은 17.1%, 121위로 북한과 비슷한 수준이다. UN Women(<http://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2019/03/women-in-politics-2019-map>, 접속일: 2019. 10. 2).

영향력이 없고” “평등을 주장한다는 걸 보여주느라고 얌혀 놓은” 것에 불과하며, 결국은 “남자들이 결론을 내릴 게 뻔하다”라는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언어로 북한의 공식노동 영역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을 지적하고 차별적 현실을 비판한다. 공식노동 영역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은 북한 여성들이 공식노동 영역에서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신 시장경제활동에 뛰어들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택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여성들의 인식은 한편으로는 김정은 시대의 여성 정책의 배경이 되는 여성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정책적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적 노동이 장려되고 여성들의 전문직 진출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성과가 장식용 ‘병풍’을 크게 벗어나는 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북한 여성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한편, 일부 여성들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사회 분위기 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여성을 많이 내세워준다”라는 의견을 피력한다. 북한에서 2015년까지 교사로 일했던 한 여성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정권 기관에서 무조건 간부 중 30%를 여성으로 임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군사복무를 한 대학 졸업생들을 기관장, 당비서 등 간부직에 대거 발탁하였다고 증언한다. 이는 일종의 여성할당제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III. 여성의 다양한 공식부문 노동 양상

1. 생산 ‘전투’가 벌어지는 경공업 공장과 노동의 젠더화

공식노동 부문 중 주로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여성직업장은 경공업과 식료부문 공장들이 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주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산업부문 발전이 강조되면서, 관련 공장에서 생산이 활성화되고 강도 높은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100명 이하 규모의 지방공장 중에는 가동률이 매우 낮거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공장들이 많은 데 비해,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중앙기업소나 지방의 식료, 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생산과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공장들에서는 지방 공장처럼 노동자들이 시간을 내서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공장들은 대부분 중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배치되는 젠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육체적 힘을 요하는 기계공업 등 중공업

부문의 노동과 달리, 경공업 부문 노동이 세밀한 작업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섬세함과 장시간의 반복적 노동을 견딜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한 노동이어서 여성의 특성에 맞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 양강도 접경지역의 도시에서 태어난 한 여성의 사례를 통해 여성이 주를 이루는 경공업공장의 노동실태를 엿볼 수 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10대 때부터 중등학교¹⁴⁾에서 생활했던 이 여성은 2000년대 중반에 중등학교를 졸업한 후 탈북할 때까지 10년간 신발공장에서 재봉공으로 일했다. 중등학교 기숙사가 자신의 집이었듯, 중등학교를 졸업해서는 공장 기숙사가 자기 집이고 신발공장 간부가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녀가 다녔던 신발공장은 500명 규모의 공장으로, 시에서 가동률이 제일 높은 공장이었다. 일년 내내 ‘100일 전투’, ‘200일 전투’ 같은 속도전과 노력동원이 끊이지 않아, 밤에도 자지 않고 일해야 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숙사 청소부터 시작해서 공장 마당과 작업장을 청소하며 하루의 노동을 시작하였다. 작업은 교대제로 이루어지지만, 속도전이 진행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기숙사에 사는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다.

신발공장은 노동 강도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을 잘하면 입당을 시켜주기도 했다. 일반주민들이 기피하는 노동 강도가 높은 공식직장에서 노동을 강제하는 유인으로 입당이라는 정치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던 것이다. 신발공장 여성노동자들은 “일하는 데서는 따왕”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일을 잘 했다고 한다.

이 여성이 다녔던 신발공장에는 “여자 할 일 따로 남자 할 일이 따로” 있었다. 제화직장, 고무직장 등 고무판, 철강 같은 무거운 자재와 공구를 다루는 직장¹⁵⁾에서는 주로 남성들이 일했고, 이 여성이 다녔던 재봉직장은 수리공 한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여성이었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하는 재봉일은 못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신발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때문에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 중매로 결혼을 했다. 신발공장에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 공장에서 ‘결혼식상’을 차려주는데, 이 여성은 결혼식상을 받으면 평생 신발공장에 다니면서 ‘보답’해야 할 거라는 생각에 공장에 다니면서 결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상을 차려줘요. 그런데 그걸 그만큼 받았으면 또 더 보답해야 돼요. 저희 같은 거는 국가 배려도 받았지, 공부도 했지, 또 그렇게 해줬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 잘난 결혼식상 받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나는 그게 싫었거든요.”

14) 중등학교는 중등교육 단계의 고아를 교육 및 보호하는 북한의 교육기관이다.
 15) 여기서 ‘직장’은 공장이나 기업소 내의 부문별 생산단위를 의미한다.

신발공장에서 결혼식이라는 게, 내 일생에 신발공장 다니는 한 결혼식이라는 건 없다.” (30대 여성, 양강도 거주, 노동자, 2014년 탈북, 2019. 8. 7. 면담)

자녀의 결혼식상을 차린다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 가족을 이루는 것을 부모로서 승인하고 사회적 인정을 구하는 것이다. 부모가 없는 신발공장의 여성노동자들에게 직장에서 결혼상을 차려주었던 것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세포인 가족을 이루는 것을 국가가 승인함과 동시에 대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우는 의례이다. 신발공장의 여성노동자들에게 그 의무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고된 노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2. 작업장의 젠더 위계

여성노동자들이 근무했던 직장은 대부분 여성이 주를 이루는 직장이지만, 소수의 관리자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나이 많은 남성 관리자들이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위계와 연령에 따른 위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젠더위계구조이다. 다음 사례는 ‘남성=관리자, 여성=일반노동자’라는 젠더 위계가 어떻게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함경북도의 도시 지역에 거주했던 30대 여성이 다녔던 탄광연합기업소는 남성노동자들이 많았지만, 이 여성은 비교적 육체적으로 힘이 덜 드는 선탄직장에서 일했다. 선탄직장의 노동자들은 간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지만 ‘소대장’이라는 직함의 관리자는 남성이 담당했다.

“여소대장 없고 남자소대장. 왜인가 하면 그 여자들 입살이 세니까, 거반 다 이줌마들이 돼서 입살이 세니까, 말이 많고 입살이 세고 드살이 세니까 남자 이렇게 소대를 세워 놓는 거예요. 남자를 세워 놓는 거예요. 거기 법은... 거기에 직장에 법은 무조건 소대장 남자에요. 여자 없어요. 그리고 당원들 소대장시켜요. 남자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입당하고 제대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대장시키지, 여느 이줌마는 여자 소대장 안돼요. (중략) [통제 방법은] 소대장이가 말 못하게 하지. 말 못하게 하고 좀 상스럽게 욕하죠. 상스럽게 욕하고 말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 동원이 많거든요. 돌격대 동원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 동원 내보내요.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하죠. 소대장한테 잘 보여야 자기가 점수 따겠으니까 소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폭력 쓰거나 그런 거는 혹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 여자들이

드살짝 세가지고 폭력을 못해요. 그게 좀 우리 컨베아 운전공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드살이 세요. 그리고 또 과부들이 많고.” (30대 여성, 함경북도 거주, 노동자, 2017년 탈북, 2019.8.13. 면담)

위 인용문에서 이 여성은 관리자인 소대장은 남자만 될 수 있고 여자는 절대로 소대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다. 선탄직장의 여성노동자 중에는 성질이 드센 기혼 여성들이 많은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관리자를 남성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성질이 드센 여성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은 때로는 폭력도 불사하는 남성의 힘이다. 힘을 가진 남성이라는 젠더 권력은 당원이라는 정치권력과 결합되어 여성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3. 공식직장 노동과 비공식노동의 병행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큰 공장이나 지방 식료공장과 달리, 지방의 일반적인 공장이나 기업소는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배급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직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배급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대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여성들의 사례는 공식노동과 병행하여 장사나 서비스업종, 가내수공업 부문에서 여성의 비공식적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직 직장에 다녔던 한 20대 여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여성은 2010년대 초반에 중학교¹⁶⁾를 졸업하고 기능공학교에 들어가 이발을 배웠다. 그는 2010년대 중반에 지방행정기관의 사무직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다. 직장에서 받는 것은 노임 1,500원이 전부였지만, 한 달에 일주일 정도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을 갖고 다른 경제활동도 할 수 있었다. 이 여성은 기능공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집에서 이발을 해주고 돈을 벌었다. 2017년에는 경제봉쇄로 인해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연합기업소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배급이 끊기면서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먹고살기 어려워졌다. 국경경비가 강화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장사도 이전만큼 쉽지 않아졌다. 지역의 다른 여성들은 모자뜨기, 가발만들기 등 ‘씨비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했다.

“[여성들이 졸업하면] 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뭐 별로 없어… 한 때 그건 어떻게 들어왔는지, 중국에서 이렇게 모자랑 가발이랑 뜨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애들이 찾아가지고 씨비…; 그런 거 보고 씨비일이라고 하는데, 씨비 그거 모자

16) 현재 북한의 중등학교는 남한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3년제 초급중학교와 남한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3년제 고급중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학제개정 이전에는 현재의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6년제 중학교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한개 뜨면 뒤 8천원, 8천원씩 받고 그걸 온밤 떠요, 앉아서. 이렇게 온밤 떠가지고
눈이 이렇게 충혈이 지고 그레가지고 8천원 받고 그걸로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매일 매일 8천원 모아가지고 그레가지고 쌀도 사고 옷도 사 입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 머리칼도 팔아가지고. 그게 한창 지금 또 맨 머리칼 장사가 많아가지고,
머리 긴 사람은 “센치당 얼마다.” 이레가지고, 머리를 다 슈아서 모아 놓고 해가지고
그거 또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20대 여성, 함경북도 거주, 노동자/장사, 2018년
탈북, 2019. 5. 9. 면접)

경제난 이후 공식직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이후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북한주민들이 비공식부문의 노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의 사례는 공식직장에 다니는 여성들 중 상당수가 공식노동과 병행하여 장사나 서비스업종이나 가내수공업 부문의 비공식적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전문직 여성의 노동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가급적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거나 장사나 비공식부문에 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데 비해, 전문직 여성 중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여성들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에서는 전문직 여성들을 국가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로 호명하며,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이들의 활약을 강조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최첨단 돌파’ 구호와 ‘지식경제시대’ 담론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남성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첨단 분야 직종이 여성들의 직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언론매체에서는 가정에서 주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도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직 여성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미개척 분야에서 성공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여성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북한의 소설 속에는 설계기사, 식료기계기사, 김책공업대학 연구사, CNC 연구사, 과학자, 국방과학연구소 등 과학기술 계통의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등장하는데,¹⁷⁾ 이는 여성의 전문적 역량을 강조하고 사회생활을 통해 이를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김정은 시대의 젠더 담론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지역의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직장을 배치하지만,

17) 임옥규, 「북한 문학을 통해 본 김정은 체제에서의 국가와 여성-『조선문학』(2012~2013)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3호, 2014, pp.250~251.

대학 졸업생은 간부대상자로서 도·시·군당의 간부부에서 직장을 배치한다. 대부분의 전문직 여성은 대학졸업자이다.

“우리는 직업적 혁명가라는 이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래서 엄청 진짜 정말 노력을 하거든요. 나는 여기(남한)에서 학부모들이 오하려 교사들한테 가서 뭐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은 아니거든요.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진짜... 교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교사에게 자기 애를 전적으로 다 맡기기 때문에. 엄청 교사로서 긍지감, 자부심 이런 게 엄청 높잖아요.” (40대 여성, 양강도 거주, 교사, 2015년 탈북, 2019. 8. 16. 면접)

위의 인용문에서는 생산직이나 일반 사무직에서 일했던 여성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직업적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위의 여성은 면담 도중에 김일성 전 주석이 아들 김정일 전 위원장의 담임선생님이 오자 맨발로 뛰어나가 영접했다는 일화를 얘기하면서 교사의 긍지에 대해 강조했다. 이러한 직업적 자부심과 긍지는 그녀가 결혼한 후에도 교사라는 직업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던 동력이다. 교사로서의 긍지의 일면은 아이들을 훌륭한 국가의 인재로 키워낸다는 점이지만, 동시에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해 갖는 존중과 그 표현으로서의 경제적 보답도 교사로서 갖는 긍지의 한 부분이다. 교사들에게는 정기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배급이 지급됐다. 주로 옥수수를 받았고 간혹 쌀도 몇 킬로씩 받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교사의 주된 경제적 소득은 배급이나 임금이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 나왔다. 북한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자녀를 한 명씩 낳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육에 열성을 보이고 교원도 높아졌다고 그녀는 평가한다. 교사들은 “국가에서 돈 조금 주는 것 안 바라고” 학급 학생들의 부모가 “교사가 한 달 먹을 식량을 다 대준다.”라고 한다. 전문직으로서 교사의 노동이 일반 여성노동자의 노동과 구분되는 점은 자신이 행하는 노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그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 공식적 소득 이외에 직업의 유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 같은 것들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북한의 성별 노동분업 구조와 공식노동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노동의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비공식부문에서의 여성들의 활동 강화가

사회 전반적인 젠더 위계를 악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조영주는 시장에 대한 권력 행사와 그에 따른 부의 창출이 여전히 기존의 정치적 권력 집단의 전유물인 상황에서 여성들은 부의 창출을 위해 기존의 남성 권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애초에 정치적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들의 생존이 남성과의 협력이나 남성에 대한 의존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남성 중심 질서가 와해되거나 균열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결론짓는다.¹⁸⁾ 여성들이 시장노동을 통해 남편을 출세시키는 경우 경제공동체인 개별 가족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력을 통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결과는 실제 경제활동을 한 여성노동에 대한 인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남성의 지위 향상과 권력 강화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시장경제활동이 가족 관계 내의 권력 구조나 사회 전체의 젠더 관계의 변화로 바로 이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국한해서 볼 때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을 지닌다.

다른 한편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와는 조금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시장화 조치를 실시한 후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국가경제에서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힘이 특정한 국면에서 비공식부문 노동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인정이나 비공식부문 노동의 일부를 공식 제도 안으로 포섭하는 국가의 대응을 이끌어 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노동분업 구조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가 흔들리면서 젠더 권력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선형 국가들의 경제체제의 전환이나 시장경제 도입 경험 검토를 통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난 이후 현재와 같은 노동분업 체계를 만들어 낸 원동력은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위한 여성들의 실천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의 젠더화된 이중 노동구조는 공식노동 우위의 위계적 구조이다. 여성들이 비공식부문에서 행하는 노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런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부양'을 호명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 대부분 경제적 가치는 공식노동을 통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연계된 비공식부문의 여성노동을 통해 창출된다. 이 전도된 관계, 허울과 실제의 불일치는 기존의 젠더 질서를 전복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여성들의 시장경험과 경제적 능력 강화는 가족 관계 내에서 여성의 발언권 강화나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위계적 관계의 약화,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경제력을

18)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정치: 배급과 '성분-당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제2호, 2013, p.138.

갖추고 새로운 자의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려고 하는 북한 여성들의 실천이 향후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노동신문』, 「선군조선의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탄생」, 2015. 6. 22.
- 『노동신문』, 「당의 과학기술증시로선 관철에 앞장선 미더운 녀성들」, 2018. 11. 16.
- 대한변호사협의회,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의회, 2014.
- 박영자, 『북한 여자』, 서울: 엘피, 2017.
- 임옥규, 「북한 문학을 통해 본 김정은 체제에서의 국가와 여성-『조선문학』(2012~2013)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3호, 2014, pp.250~251.
- 장지연·김화순,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 고용 및 일 가정 양립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여성정책연구원, 2015.
-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정치: 배급과 ‘성분-당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제2호, 2013.
- 조영주·장은하·문희영·박윤정·조정아·정은이,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헤산, 도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Education Commission DPRK, *Education For all national EFA 2015 review: DPR Korea*, S.I.: Education Commission, 2014.
- <웹사이트>
- UNESCO UIS database(<http://data.uis.unesco.org>, 접속일: 2019.5. 26, 2019. 8. 30).
- UN Women(<http://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2019/03/women-in-politics-2019-map>, 접속일: 2019. 10. 2).